40년 동반자에 대한 소중한 기억·그리움·회한

고 김혁종 전 총장 1주기 맞아 아내 송숙남 광주대 교수 개인전 회화·주얼리·사진 등 40여점 28일까지 광주대 극기관

송숙남 교수의 15번째 개인전이 광주대 극기관 1층 전시실에서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김혁종 전 총장의 1주기를 겸해 열리며 추모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장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작품은 'my wife'와 '소(笑)'다. 다른 작품들과 분위기가 다르다. 두 그림은 다른 모던한 작품들과 달리 고전적이면서도 담백하다. 기교 없음의 기교는, 말 없는 말과 같은 느낌을 발한다.

무엇보다 'my wife'에서는 세월이 느껴진다. 시간이 아닌 세월의 흔적은 보는 이에게 적잖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작가는 말했다. "저 그림은 남편이 40여 년 전에 그렸어요. 저의 모습을 그렸는데 조금 익살스러운 모습이지요."

작품 하단에 '82.8.26'이라는 일자와 'Hyuk Jong Kim'이라는 서명이 보인다. 비로소 작품의 작가가 누구인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이 된다. 'my wife'는 고(故) 김혁종 광주대 총장이 지난 1982년 8월 26일에 그린 아내 송숙남 작가(광주대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 교수)의 초상화다.

광주대학교 김혁종 총장 1주기 추모전(맞아요 Blue)이 열리고 있는 광주대 극기관 1층. 전시실을 찾은 학생들과 관람객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이어진다.

지난 8일 개막돼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김 전 총장 1추기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숙남 교수의 15번째 개인전으로, 작가는 김 전 총장에 대한 기억을 담은 회화와 주얼리, 사진 등 40여 점을 선보인다.

'my wife' 옆에 있는 그림 '소(笑)'는 송 작가가 그린 남편 김 전 총장의 캐리커처다. 송 작가는 "지난해 갑작스럽게 남편과 사별한 후 그린 그림"이라며 "얼굴의 특징만을 잡아 간략하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my wife'와 '소(笑)' 사이에는 41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자리한다. 그럼에도 두 그림은 절묘하게 닮아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림 속 둥그런 코 모양은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창부수(夫唱婦隨)다. 한 작품은 파스텔화이며 다른 작품은 갈필 붓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40년의 세월을 넘은 두 작품의 기저에는 '사랑'과 '존경', '그리움'이라는 의미가 함의돼 있다.

전시 주제를 '맞아요 Blue'라고 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남편은 유독 파랑색을 좋아했지요.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긍정을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맞아요'와 'Blue'를 하나로 묶어 주제를 만든 것은 그런 연유입니다."

전시실에서는 남편에 대한 기억과 애모의 감정을 다채롭게 표현한 작품과 옛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40년을 함께하며 보필했던 소중한 기억과 사별 후 그리움, 아내로서의 회한 등이 묻어난다.

'6월 꽃'이라는 작품은 주제와 밀접하게 연동된다. 전체적인 블루 배경에 강렬한 빨강은 생동감과 역동성을 환기한다. 도록에 담긴 '파랑'이라는 시를 통해 남편에 대한 사랑과 함께한 추억을 대략이나마 짐작한다.

"미묘한 혼란도 없다/ 생생한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람// 파란색과 함께한다면/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 / 그대가 파랑 안에 있다면// 맞아요 블루"

이밖에 '그대가 파랑안에 있다면', 'feeling blue', '고독한 삶의 확장', '칼바람 꽃' 등의 작품에서도 파랑의 흔적과 의미를 만나게 된다. 아울러 송 교수가 지난 1년 동안 써 온 글을 비롯해 유학시절 주고 받은 편지, 김 전 총장의 인생 여정이 담긴 추억의 사진 등도 볼 수 있다.

김영순 미술평론가는 "무심하게 화면을 흘러내리는 드리핑 자국과 낙서기법이 어우러진 카오스의 세계가 인위적 창작 의지마저 흐트러뜨리고 지워내기라도 하려는 듯 허허하다"며 "그 방황의 여정은 2019년 제12회 개인전에서 과시한 작가데뷔 30여 년만에 성취한 고유한 전형의 경지에서 머뭇거리며 자기 반복을 시작할 위기에서 벗어나, 다음 장으로 나아갈 출구의 징후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고 평한다.

한편 오는 7월 18일부터 31일까지는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도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笑)'〈왼쪽〉와 'my wife'

비움박물관에 전시된 다양한 부채와 소품. 〈비움박물관 제공〉

옛 사람들의 여름나기

비움박물관, 8월 31일까지 기획전

점차 무더워지는 여름, 다양한 부채와 대나무 평상이 생각나는 시기다. 옛 사람들은 더위가 시작되면 소박한 부채 등으로 더위를 식히며 여름을 보냈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다소 문명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그러나 가장 '문명적'인 여름나기의 방편이기도 했다.

비움박물관은 여름을 맞아 오는 여름 기획전시 '문명의 뒷마당, 그 시대의 여름'전을 개최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무더운 여름을 소박한 부채와 대나무 평상으로 견뎌냈던 옛 사람들의 삶의 한 장면을 볼 수 있다.

주요 전시품은 다양한 모양과 색감으로 만들어낸 부채를 포함해 대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소품들 약 290여 점이다. 더운 여름 필수품이었던 대나무를 소재로 만든 실용품들이 출품됐다. 화려하고 편리한 현대 문명의 뒷마당에 자리한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물건들을 볼 수 있다.

수장고 형식의 민속박물관인 비움박물관은 3만여 점에 이르는 방대한 소장품들 중에서 계절마다 기획전과 맞는 전시품들을 선별해 1층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다.

한편 이영화 관장은 "비움 박물관은 가족들과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함께 추억 나들이에 하기에 맞춤형 공간"이라며 "이번 전시는 화려하고 편리한 현대 문명의 뒷마당에 과연 우리의 무엇이 자리했었는지 되물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시사철 농악 연행 '도깨비굿'을 만나보자

광산농악보존회, 24일 '사시사철 굿이여' 진행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농악은 다양한 모습을 지닌 우리의 전통 문화다. 신명난 공연 외에도 마을 제례에서는 의례로, 공동노동에서는 두레굿으로 펼쳐졌다. 나아가 각 집안의 안녕과 복을 빌어주는 액막이 등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점차 마을이 사라져가고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많은 기능들이 상실되는 상황이다. 현재는 판굿 등 공연의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있다.

농악의 다양한 모습을 사시사철 농악 연행을 통해 경험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광산농악보존회(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는 오는 24일(오후2시) '사시사철 굿이여' 두 번째 프로그램 도깨비굿을 진행한다.

사시사철 굿이여는 사시사철 대표적인 농악 연행을 통해 다방면으로 농악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농악을 활용하고 즐겼는지 공연과 체험, 교육을 통해 농악을 다각도로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재청과 광산구가 주관하는 2023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진행된다.

'광산농악 데다보기'의 데다보기는 들여다본다는 전라도 사투리로 광산농악의 악기별 유래와 전승과정, 광산농악만의 특징 등을 전수자에게 직접 들어보고 배워보는 시간이다. 농악의 의미를 알아보고, 광산농악의 맛과 멋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제는 '광산농악의 장구'. 광산농악의 장구는 아랫놀음이 풍부하며 잔발치기가 많고, 웃놀음은 채발림이 흥겹고 너름새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광산농악 설장구 이수자 김용석 이수자가 진행한다.

농악 체험 스탬프투어인 '농악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선조들의 지혜와 전통이 곳곳에 숨어있는 농악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해보는 시간이다. 악기체험만 하는 농악에서 벗어나 문굿의 통과절차인 수수께끼 풀이, 두레굿에 기반한 큰기의 깃발싸움, 악기 두드림을 통한 액막이 등 다양한 농악체험을 스탬프투어를 통해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

광산농악보존회 '도깨비 공연' 장면. 〈광산농악보존회 제공〉

한편 광산농악보존회 관계자는 "지난 1992년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지정된 광산농악보존회는 매년 정기공연과 대보름공연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농악강좌, 농악축제 등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삶과 예술'

22~23일 정선휘 작가 인문학 강좌

작품 이미지를 통해 광주 도심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예술작은도서관(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이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 다섯번째 시간에는 정선휘〈사진〉 작가를 만난다.

오는 22~23일 오전 10시. '삶과 예술'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강좌는 작가가 그동안 작업하면서 느꼈던 삶과 예술에 대해 들려준다.

22일 1강에서는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주변의 이야기를 작품 이미지와 함께 들을 수 있다. 작가는 LED를 이용한 회화 작업의 형식변화에 대한 미술계의 반응 등 그동한 경험한 삶의 현장, 삶과 예술에 대해 풀어낼 예정이다.

22일 2강에서는 르네상스 건축의 선구자로 알려진 이탈리아 건축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1377~1446)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당시와 오늘과의 환경적 차이점을 고찰한다.

한편 정선휘 작가는 전남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대학 졸업 이후 주변풍경을 관찰하며 느꼈던 점을 토대로 작업해왔다. 신세계미술제 공모전, 제4회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4 접속, 제5회 광주비엔날레 먼지 한 톨 물 한방울 등을 통해 주변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2006년부터는 작품에 LED를 활용해 작업을 하고 있다.

정 작가는 작가는 "삶보다 훌륭한 예술은 없다고 평소 생각하면서 작업한다. 어느 시대 장소를 불문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술"이라며 "이번 강의에서는 그동안 작업하면서 느꼈던 삶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강인원은 15명 내외이며 무료. 신청 희망자는 22일까지 선착순 방문접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현대시' 어떻게 읽어야 하나

강인한 시인 비평집 '백록시화'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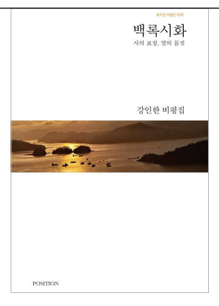
"대학 시절, 국립 지방대학교에 다니면서 나는 죽어라고 글을 썼다, 닥치는 대로였다. 시, 소설, 희곡, 무어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잡문도 턱없이 써 댔다. 쓰는 것만이 내 유일한 삶의 증거였다. 그렇게 쓰면서 문득 느껴지는 게 있었다. 인간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창작 행위라고."

강인한 시인. 지난 196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로 등단해 시집 '이상기후', '불꽃', '전라도 시인' 등을 비롯해 시선집 '어린 신에게', '신들의 놀이터'와 시 비평집 '시를 찾는 그대에게' 등을 펴냈다.

시인은 평생 시를 쓰고 시를 읽어왔다. "한 편의 시가 장편소설 한 권에 필적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쓰고 읽어왔다.

이번에 강인한 시인이 비평집 '백록시화'(포지션)를 발간했다.

'시의 표정, 말의 몸짓'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비평집은 시의 언어와 현대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등을 정밀하게 풀어낸 글들을 모았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역사 속의 시를 비롯해 불가해한 사랑에 바치는 연가(戀歌)들, 즉물적(卽物的)인 시 등을 다룬다.

2부에서는 감각의 통로에서 바라본 시들, 장시와 처녀시집과 시의 재미라는 것을 주제로 한 글이 수록돼 있다. 또한 정양, 김기택, 함기석, 윤성택, 조정, 김중일, 이근화, 안희연, 이혜미, 김경주 시인의 시에 대한 감상의 평을 만날 수 있다.

3부에서는 자작시를 해설한 글이 담겨 있다. '귓밥 파기', '램프의 시', '불길 속의 마농'에 대한 시인 나름의 해설과 감상을 만난다.

강 시인은 "문학은, 아니 시는 내게 하나의 종교였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를 여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내가 크게 뒤틀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문학이라는 종교의 힘이 컸다"며 "언제부턴가 진심을 담아 시를 쓰는 것이 결국은 자기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 출신의 강 시인은 전남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시와시학시인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